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ne 21,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kmbc.org

www.silokm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km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79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H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H44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I Come to the Garden Alon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0:24-39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다 Jesus Sends out the Twelve.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임시 신도 사무 총회 2026 년 6 월 21 일

- 친교후 예배 장소 이전 안건

야외 예배 2026 년 6 월 21 일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21:8-21

-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시편 PSALM 86:1-10, 16-17

-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예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 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 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 10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6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6:1-11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며 단호하게 꾸짖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 영적인 신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침례는 단순히 몸에 물을 적시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모든 습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술 퍼렇게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첫 새벽과 같은 새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와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 연합을 통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죄의 사슬이 단번에 깨어지고 깨끗해지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옛사람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던 과거의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죄는 강력한 주인처럼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시체는 주인의 명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법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새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제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하여 눈을 번쩍 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평생 살아온 버릇이 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겠어?" 하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 온 섭섭한 마음, 미움, 불평, 혹은 염려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선언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도, 십자가 위에서 내 옛사람은 이미 처리가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걱정과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버릇에 다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오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말이 오가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질은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생명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침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이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2. 요즘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꾸만 옛날의 나쁜 버릇이나 죄의 모습(염려, 불평, 미움 등)으로 끌고 가려는 주된 유혹은 무엇인가요?
3.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라는 말씀이 오늘 내가 처한 가정이나 교회, 일터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아침 선포 기하기: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라고 크게 세 번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화요일: 옛 습관 장례식: 나를 괴롭히는 옛 버릇(염려, 원망 등) 한 가지를 종이에 적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기도한 뒤 종이를 찢어 버립니다.

수요일: 말씀 암송과 묵상: 로마서 6 장 11 절 말씀을 작은 종이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하루 동안 서너 번 소리 내어 읽습니다.

목요일: 온유함으로 반응하기: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3 초 동안 숨을 고르며 "내 옛 성질은 죽었다"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온유하게 말합니다.

금요일: 감사와 순종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일(용서한 일, 참아낸 일 등)을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의 노예 삼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여전히 연약함이 보이고 옛 버릇이 찾아와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평생을 내 욕심과 세상 염려에 매여 살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0:24-39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